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서명 당사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헌신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마지막 혼을 불살랐던 과제는 남북문제였다. 북한이 김기남 비서를 단장으로 '특사조의방문단'을 남측에 파견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접촉과 이명박 대통령 면담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고위당국간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대통령의 서거는 남북화해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민주화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위해 노력했던 지도자였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주도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햇볕정책'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기본 가치는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북한정권은 자체의 힘으로 변하기 어려운 정권이란 전제하에서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냉전구조해체구상'은 기존의 정전협정에 기초한 냉전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 대통령의 현상타파 노력은 현상유지를 바라는 국내외 세력의 저항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햇볕정책’ 전략적 의미 찾아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적인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이상 적대관계를 지속해왔던 남과 북이 공존공영관계로 관계설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북한을 공존과 협력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나를 둘러싸고 현재까지도 남남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

려울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현 집권세력이 내놓은 선거구호 중에 가장 자극적인 구호는 '진보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이다. 해묵은 이데올로기 덧씌우기로 지난 10년의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을 폄하하고 '경제 살리기'란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내세운 보수세력이 집권했다.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의 본질적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지, 아니면 화해협력을 주도했던 햇볕정책의 창안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계승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북강경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며 남북갈등을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6·15 선언의 서명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6·15선언에 대한 평가도 '정치화'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6·15선언이 역사로서 사멸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로 되살아나 부활할지는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대북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의 전략적 의미를 찾아서 대북정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억 없는 급변사태에 기대어 요행을 바라다낸 남북관계 복원은 요원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태고종 선관위의 막중한 책임

태고종이 종도들의 여망과 불자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운산 전 총무원장의 사임(8월 11일)으로 갑자기 선거정국을 맞은 태고종을 보며 많은 종도와 불자들은 조용한 선거로 종단의 발전 모드를 형성 시켜야 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태고종 선관위는 4명의 총무원장 후보가 등록한 상황에서 3명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문제는 '복수추천'이다. 세 후보의 추천이 복수의 종회원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발표에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세 후보는 복수추천이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과 선관위가 선거 공고 이후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규정을 정했으며 그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상황을 따져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학생들 학급선거도 이뤄지는 않을 것이란 불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어느 조직이든 선관위는 '중립'의 의무가 있다.

자격을 인정받은 후 후보자와 인정받지 못하고 '그 처사를 수용할 수 없는' 세 후보. 이들의 입장과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선관위다. 선관위가 얼마나 중립적이고 엄정한 잣대로 선거업무 수행하느냐에 태고종의 앞날이 달려 있다. 태고종 선관위는 종도와 신도들이 불자인 것이 부끄럽게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불교환경연대의 3대 불사

'환경보살' 불교환경연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활동 10년을 맞은 불교환경연대 '환경보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별명의 의미는 매우 심장하다. 바로 '보살'이란 말을 유념해야 한다. 보살이란 대승불교 사상의 총명이다. 일체중생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중단 없는 실천행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사람은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공하는 모범을 보여 왔다. 각지에서 난개발이 치성하고 지역이기주의가 들끓는 가운데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환경보살의 길을 걸어 온 것이다. 걸어 왔다고 하기 보다는 '3보1배를 해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3보1배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제 불교환경연대는 향후 10년을 주제로 쏘아올리고 있다. 불교 NGO센터 건립과 불교환경문제연구소 설립 그리고 인재불사를 3대 불사로 삼았다. 모두 긴요하고 시급한 불사들이다. 불교의 현대화 과정에서 이 세 분야는 그 중요성에 비해 다소 도외시된 감이 없지 않다.

제도권 안에서의 발전 코드와 밖에서의 발전 코드는 갈을 수 없다. 불교환경연대의 지난 10년이 빛나는 것은 제도권 밖에서 시대적 요청에 충실히 부응했다는 점이다. 이제 향후 10년의 과제를 함축한 3대 불사는 불교계의 대사회적 위상을 자리매김 시키고 환경과 관련한 내적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불자들의 동참과 관심을 당부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9월의 테마-독서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이제 결실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이런 때에 불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육체의 양식이 음식이라면 마음의 양식은 경전의 독송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전해주시신 진리의 보배를 간직하여 그것을 깊이 사유하고 실천하여 부처의 삶으로 연결시켜 참다운 진리의 공덕을 쌓는다. 이를 더듬어 봄에 경전독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효과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찰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는 스님들의 목소리이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들은 수많은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전과 논서들이다. 예를 들면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기신론> 등이다. <법화경> <화엄경> <정토삼부경> <능가경> <지장경> <천수경> 등도 독송한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는 부처님의 주옥같은 가르침으로 미래에 부처가 될 공덕

올바르게 '경전독송'하는 방법

을 쌓는 매우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이다. 아울러 살아 숨쉬는 진리의 부처님을 대면하는 제일의 작업이며 일반적으로 독서 또는 글읽기라고 말한다.

경전을 독송하는 방법은 우선 큰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내용을 집중해 생각한다. 독송이 끝나고 나면 잠시 독송했던 내용을 마음속에 그려내면서 깊이 사유해 마음속에 간직하여 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자기 능력에 맞추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현실생활에 옮기되 습관이 되어도록 노력한다. 혹여 글을 모르는 분들은 식구 중에서 글을 아는 자녀나 손자에게 큰 소리로 읽게 해 함께 독송한다. 그러면서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스님이나 잘 이해하는 불자에게 물어 이해하도록 한다. 경전을 읽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경의 궁극적 의미를 체취해 깨닫는 것이다.

<법역잡아함경>을 보면, "비록 경전을 잘 들었으나 만약 받아 지니지 않으면 갖추지 못한 것이다. 비록 잘 받아 지녔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갖추지 못한 것이다. 비록 그 의미를 알았으나 그 의미처럼 수행하지 아니하면 갖추지 못한 것이다. 만약 경전을 믿고 받아 지니 회사하는 마음을 잘 갖추고 자주 절에 가서 법문을 들으며 받아 지

니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의미처럼 수행하면 그는 원만하게 수행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불자가 경전을 받아 가지고 독송하고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함께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대승불자의 완전한 삶이다.

이러한 경전을 독송한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공덕을 짓게된다. 다음은 부처님의 경전이 가장 먼저 저장된 곳이 바로 허공이기에 허공에서 인연이 성숙돼 결과를 속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제일은 바로 경전을 독송해 올리는 일로 무명(無明)을 타파한다. 끝으로 나와 남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하는 일이며, 부처님의 해명(慧命)인 법신(法身)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가장 모두가 함께 공덕을 이어받아 행복의 평화로운 일만을 누리게 된다.

법상스님

중앙승가대



현불만평 박구원 한쪽은 단단히 묶어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발백중 「구단구궁법」

저자 법화스님 직강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직업, 성격, 명운 척척 들어 맞춘다.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과거 10년, 미래 10년을 꿰뚫는다.
- ◆ 2주 완성

당신도 2주후 『최강자』가 될 수 있다.

부산자비원 051)554-6040
010-9399-7442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 법문, 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 행사, 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채널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세트 CD30장
-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세트 20장CD
-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 2.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 법문 등의 동영상 제작해 드립니다.
-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담 합창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라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 또는 명망타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